

# 8개국 3천개 燈 한자리 모인다

### 지구촌 등축제 2001 남산 한옥마을 23~28일

어둠을 밝히는 등(燈)은 실용적인 면에서나, 종교적인 면에서 우리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다. 특히 부처님 앞에 불을 밝히는 등공양은 향, 꽃과 함께 중요 신행 의례로 행해져 왔다. 우리 조상들은 등불을 켜면 부정한 기운과 잡귀가 물러난다고 믿어왔다. 혼례 때 청홍색의 초롱을 드는 풍속도 이같은 이유에서 출발한 것이며, 오랜 옛날부터 모든 의례의 시작을 알리는 행위로 등을 밝혔다. 이처럼 등은 우리 생활 속에서 여러가지 역할을 해왔으며, 재료와 모양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23일~28일 서울 남산 한옥마을에서 세계 여러나라의 전통등이 어우러지는 '지구촌 등축제 2001' 행사가 열린다.

전통 불교 등과 현대적 창작등을 꾸준히 연구 발표한 전통등연구회와 서울시 월드컵 추진단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고, 불의

## 월드컵 성공개최 기원 불교 전통등도 밝혀 내년 6월 다시 행사

생명력을 통해 세계의 어둠과 고통을 밝음으로 해소하자는 데 의미가 있다. 한국, 일본, 중국, 필리핀, 베트남, 미국, 멕시코, 세네갈 등 8개국의 3천여 등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깊은 가을, 한옥과 등이 어우러져 서울의 밤을 장엄하게 빛 이번 행사는, 2002년에도 월드컵 경기 기간 중인 6월 다시 열릴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밤낮으로 눈을 감지 않는 물고기처럼 수형에 정진하라는 뜻을 담고 있는 목어등을 비롯한 불교의 전통등, 귀신을 물리친다는 벽사의 의미를 지닌 귀면등과 같은 우리 전통등과 창작등이 선보인다.



◇'지구촌 등축제 2001'은 불의 생명력을 통해 세계의 어둠과 고통을 밝음으로 해소하자는 의미가 크다. 사진은 전통 등 연구회가 지난 부처님 오신 날에 선보인 비천상등.

이밖에도 18m 길이의 용등을 비롯한 중국의 전통 등과 일본의 간토 마츠리 공연등일본 전통의상을 입고, 머리위에 장식하여 밝히는 등, 세네갈의 양가죽 등, 필리핀의 크리스마스 별등이 화려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또한 주마등(그림이 종이나

천을 바른 바깥쪽에 비치게 만든 등)과 함께하는 그림자놀이, 전통 등간 사용법 체험, 소망등 2002만 만들기 등 시민참여행사와 타악과 전통 무용이 어우러지는 타악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행사가 펼쳐진다.

이은자 기자 ees@buddhapa.com



◇중국 사천성 나한사의 오백나한당에 모셔진 무상공존자.

## 신라왕자 무상 스님 중 5백나한 반열에

신라 왕자 출신으로 열반선을 창도하여 정종종을 연 무상 스님(684-762)이 중국 오백나한 가운데 455번째로 모셔진 사실이 밝혀졌다.

불교진흥사 발행인 최석환 씨는 최근 중국 선종사찰인 사천성 나한사와 운남성 공족사 등의 오백나한당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선종화> 10월호에 관련 자료를 실었다.

중국의 오백나한은, 마하가섭을 시작으로 인도 스님만을 모신 우리 나라 오백나한과는 달리 석가모니부처님뿐만 아니라 청대의 제공선사에 이르기까지 중국 선사들을 함께 모셔 중국화된 나한 신앙의 특징을 보여준다.



## 김훈근이 쓰는 문학속의 불교

영화 <일 포스티노>를 보았다. 1971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칠레 출신의 시인 파블로 네루다(1904-1973)가 망명해서 이탈리아의 어느 섬에 머물렀을 때, 세계 각지에서 보내오는 편지를 그에게 전해주는 한 순박한 우편배달부와 나는 우정을 그린 영화이다. 우편배달부는 그 시인과의 만남을 통해 인생에 눈을 떠간다. 그는 시인에게서 "비가 온다"를 "하늘이 온다"로 표현하는 것이 곧 시의 원리인 메타포(은유이다) 등을 배우면서 시인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다. 영화가 끝나고 마지막 자막이 올라갈 때, 네루다의 시 한 편이 소개된다.

내가 그 나이였을 때  
시가 날 찾아왔다.  
난 그제 어디서인지 모른다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그제 감기였는지  
언제 어떻게인지 난 모른다  
그런 누가 말해준 것도 아니고

책에서 읽은  
것도 아니고  
침묵도 아니다  
내가 해매고  
다니던 길거리에서  
밭의 한 자락  
에서  
뜻하지 않은  
타인에게서  
활활 타오르는

## 네루다 '시가 날 찾아왔다'

## 누군가 내 어깨에 손을 얹은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불길 속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고독한 길에서  
그곳에서, 나의 마음이 움직였다.

비록 시인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누구나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다. 그때가 언제였는지 어디서인지 잘 기억나지 않지만, 마음이 살짝 움직이면서 누군가 내 어깨에 손을 얹은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서심(時心)이 되어 시의 씨앗을 길러간다.

한편 '시가 날 찾아왔다'는 구절은 '마음이 날 찾아왔다'라고도 풀린다. 두 사람 사이에서 주고받은 순박한 마음이 내게도 전해져 왔기 때문이다. 그들이 보여준 순박한 믿음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선 찾아보기가 쉽지 않게 되었다. 물질문명이 너무 번성하여 인심이 이기적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옛날 고대중국의 요충(堯)은 순(舜) 임금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하였다. "이기심은 날로 커져가고 도덕심은 날로 작아진다. 하나는 즐기고 하나는 놀려서 서로 균형을 있게 하라. (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이기심(人)이 문제인 것 같다. 욕심은 우리 눈을 가려 마음을 흐리게 한다. 좁은 마음으로는 다른 사람과 신뢰를 나눌 수 없다.

어떻게 하면 도심(道心)을 키울 수 있을까? 역시 큰 스승(佛)에게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따라야 할 것이다. '도심'을 키우려면 '인심'을 작게 만들어야 한다. 집중(三昧)을 통해 내 마음이 정처(靜)를 지어질 때(靜心), 큰마음이 그 지리를 대신 차지할 것이다. 장자(莊子)의 말처럼, 빈방(빈방)이 빛이 들어올 수 있을 것(虛室生白)이다. 내가 시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가 나를 찾아오는 것이다. 비우고 기다림. 마음도 마찬가지이다. 문헌학평론가

## '용주봉 진신사리탑' 남한 첫 공개

### KBS 역사스페셜 '묘향산 보현사' 편

북한 묘향산 보현사의 수장고에 보관된 불교유물 5천여점이 13일 TV 화면을 통해서 공개됐다. KBS가 기획한 역사스페셜 '묘향산 보현사' 편에서 공개된 보현사의 불교유물은 국보급 보물인 '용주봉 부처님 진신사리탑'을 비롯해 성동리 다리니 석당에서 나온 청동탑, 고려불상, 팔만대장경 인쇄본 전집 6,780권 등 규모와 내용면에서 하나의 작은 박물관을 이룬다.

북한 분단 50년만에 남한 방송을 통해 최초로 공개된 '용주봉 부처님 진신사리탑'은 통도사 금강계단에 있던 것을 임진왜란 때 전세가 악화되면서 일본군에게 빼앗길 것을 우려해 사명대사가 금강산으로 옮겼다가 다시 일부를 보현사에 보관한 것이다. 또 팔만대장경 인쇄본은 1937년 일제시대에 보현사 스님들이 해인사에서 인쇄한 것으로 보존상태가 아주 좋았다. 이같은 사실은 20여년간 보현사를 연구해 온 북한 불교학자 김영숙씨가 프로그램에서 직접 설명했다. 김씨는 "보현사는 단순한 사찰이라기보다는, 금강산에 있던 유점사 등 폐사지들의 유물 유적이 전이된 북한 최고의 박물관"이라고 보현사를 소개했다. 김주일 기자

초로 공개된 '용주봉 부처님 진신사리탑'은 통도사 금강계단에 있던 것을 임진왜란 때 전세가 악화되면서 일본군에게 빼앗길 것을 우려해 사명대사가 금강산으로 옮겼다가 다시 일부를 보현사에 보관한 것이다. 또 팔만대장경 인쇄본은 1937년 일제시대에 보현사 스님들이 해인사에서 인쇄한 것으로 보존상태가 아주 좋았다. 이같은 사실은 20여년간 보현사를 연구해 온 북한 불교학자 김영숙씨가 프로그램에서 직접 설명했다. 김씨는 "보현사는 단순한 사찰이라기보다는, 금강산에 있던 유점사 등 폐사지들의 유물 유적이 전이된 북한 최고의 박물관"이라고 보현사를 소개했다. 김주일 기자



◇용주봉 부처님 진신사리탑 앞에서 김영숙씨가 신재국 KBS PD에게 탑의 유래를 설명하고 있다.

### 문화소식

#### '문화의 날' 거리행사

20일 '문화의 날'을 맞아 서울 곳곳이 문화예술 마당으로 변한다.

문예회관 대극장에서는 오후 2시 문화의 날 기념식이 거행되며 문화예술계 공로자들에게 훈포장을 수여한다.

이어 차 없는 거리로 변신한

대학로에서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클래식과 팝 음악 연주, 대중가수 공연, 널뛰기, 뮤지컬, 마임, 창작무용, 민요, 어린이 놀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기념공연을 펼쳐진다.

목동 파리공원에서는 오후 1시 청 장년층을 위한 율도림과 프크송 공연이 열리고, 건국대 정문 앞에서는 하드코어, 펑크와 힙합의 무대가 꾸며진다.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는 오후 3시 마임 무용 재즈로 짜여진 지하철 예술무대가 시민을 만나고, 이날 낮 임시 '스테이지 카'가 시내를 누비며 곳곳에서 '깜짝 문화이벤트'를 갖는다.

#### 창작한불가 20일 마감

조계종총무원이 실시하는 제3회 창작한불가 공모대회 작품접수가 20일 마감된다. 공모작품은 불교적인 정서가

함축적으로 표현된 미발표 창작한불가여야 하며, 예선을 거쳐 최종 본선 진출자를 선발한다. 1인 2곡만 응모가능하며, 응모작품은 가사가 적힌 메모나 악보와 카세트테이프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종단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다운받거나, 운영위원회 사무실에서 배부받을 수 있다. 대상작에는 상금 300만원이 수여된다. (02)739-1830



◇붉은 단풍과 어우러져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송광사의 부도전.

## 사진속 송광사의 사계

### 전제주 개인전, 11월말까지 송광사에서

사진가 전제주씨가 '송광사'를 주제로 한 첫 번째 개인전을 14일부터 11월말까지 송광사에서 갖는다.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및 대한민국불교사진연합회전 등에서 작품을 선보여 온 전씨는 이번 개인전에서 카메라에 담은 송광사의 아름다운 사계(四季)와 그 속에서 수행에 매진하는 스님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하사당(下舍堂) 처마에 지팡이를 짚고 앉은 방장 스님의 여려한 모습도 엿볼 수 있고, 붉은 단풍사이에서 선 부도전의 운치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관광차 찾은 사찰에서 놓치지 쉬운 후원의 여유로운 풍경들과 송광사 신내 입차로 가는 고즈넉한 산길도 사진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061)755-0107 이은자 기자

# 시멘트 법당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지금 전국에선, 한국불교 건축공예에서 시공되는 사찰건축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 천년대계의 문화유산이 되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 한국불교의 시공은 기초부터가 다릅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특징**

- 가격이 저렴하여 경제적입니다.
- 조립공정으로 간편하여 시공이 빠릅니다.
- 섬세한 조각성형으로 작품성이 풍부합니다.
- 목조건축에 비해 선이 굵고 정밀해 우아합니다.
- 화재에 대한 관념서 벗어날수가 있습니다.

**시공예**

- 고건축사업부: 콘크리트법당, 요사채, 납골당, 콘크리트성형조각 판매.
- 조각내장사업부: 탁자, 단정, 16나한, 500나한.
- 무역부: 옥불

**한국불교건축공예**  
 서울 중랑구 망우2동 490-29  
 대표전화: (02)494-4890-1